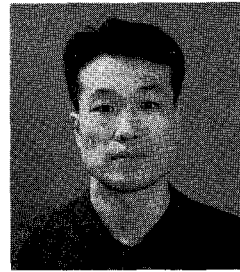


계란 소비확대와 가공업의 발전 방안



김 동 민
(유)기능 생산과장

2년전 IMF시대를 맞아 양계업자들은 사료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계란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를 맞으면서도 어렵게 양계업을 지속해 왔다.

지금은 다시 경제지표가 좋아지면서, 소비확대가 회복되어 사회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계란가격 하락으로 양계업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 숫자는 약 4,500만수 정도로 계란 생산량은 1일 약 2,400만개정도 생산되고 있다고 예견된다. 지금까지의 계란가격 구조를 보면 하절기(5월~8월)에 하락하였다가 추석 및 동절기(9월~4월)에는 계란가격이 상승 안정세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작년 추석전후부터 이러한 가격 구조가 완전히 깨져 버렸다.

이러한 상황을 맞게된 원인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나라 양계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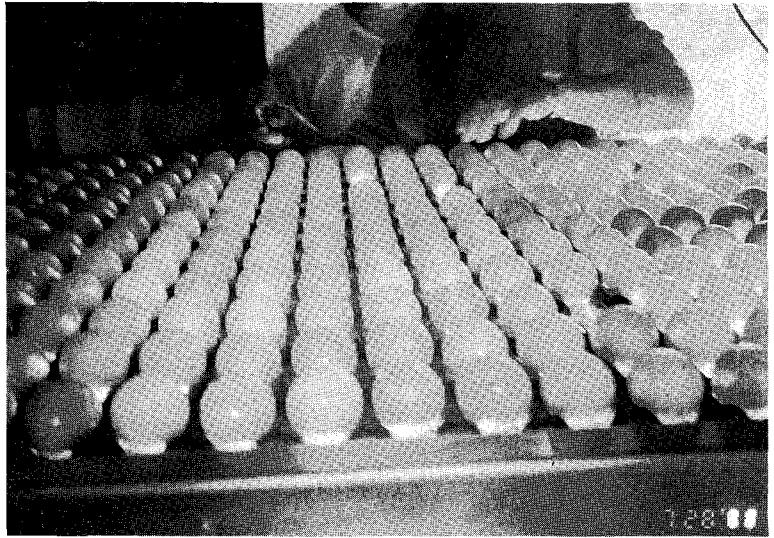
1. 계란의 과잉 생산

평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계란 숫자가 약 2,400만개/일 정도인데 작년 9월경부터 약 2,600만개/일 생산(약10% 증산)되어 계란 가격하락에 원인을 제공해, 계란가격 안정을 위하여 병아리 입식을 10%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유도하는 한편 작년 12월중에는 병아리 부화를 전면 보류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증계 수입을 연중 평균으로 하여 병아리 입식이 어느 시기에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2. 계란제품의 차별화

작년 태국에서 국내계란상인이 계란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양계업자들의 우려와 반대속에서도 통관이 되어 국내시장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심리적 가격하락 요인을 제공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지금 까지는 국내 양계업자간의 생산성 향상 및 운영의 효율화로 양계업을 영위해 왔지만, 이제는 국제적 시장가격에



도 대응하는 힘까지 키워야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국내양계업자들도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웃 일본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모든 계란에 생산일 표시 및 유통기한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국내 양계업자 및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계란에 생산일 표시 및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 신선하고 고품질의 계란과 그렇지 않은 계란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력을 배양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계란제품의 소비 확대

고단백 제품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비해 가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매우 우수한 계란을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널리 소비할 수 있게 홍보 및 계몽이 필요하다.

FAO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서독이 최고로서 282개, 미국이 276개, 일본이 262개, 영국 248개, 프랑스 224개, 네덜란드 186개로 계란의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이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의 계란 소비량은 180개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정부, 사회단체 등에서 완전식품인 계란 소비 확대를 널리 홍보 계몽할 수 있도록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원산지 표시 의무화

국내 식품업체에서 사용하는 식품원료중 수입계란 및 수입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는 원재료 표시사항에 수입품 사용이라는 원산지 표시

사항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차 농산품의 대부분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는 판매 및 사용시 원산지 표기사항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계란은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소비자들도 사용한 원료가 수입품인지 국산품인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고, 수입품과 국산품의 분명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여 경제행위의 질서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조치는 정부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국익의 차원에서 또한 소비자 보호 차원 및 국내 양계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5. 계란 제품의 수출 확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로서, 국내 내수 경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선진외국과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계 산업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가공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국내의 계란 가공업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수준이 낮고 열악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계란 가공업의 상황을 살펴보면 가능(경기, 포천), 축협난가공(경기, 평택), 삼애(경북, 김천), 대한난가공(경기, 평택), 풍림산업(충북, 진천), 오경식품(경남, 양산)등의 국내 계란 가공업체가 있다. 그 중에서 가농(경기, 포천)

은 1998년도 초에 계란 가공공장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설하여 98년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일본으로 액란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우리나라 양계 산업 발전 및 가공업의 경쟁력 제고 면에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계란가격이 하락하고, 계란이 시중에 체화될 때는 그것을 수매, 비축하여, 가공·냉동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써 국내계란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고 양계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를 하는 것은 물론, 외화획득 및 국내계란 가공업의 발전에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수출장려 정책을 펼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가공업체와 관계정부기관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대일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 국내 계란 가격과는 무관하게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이 외국제품과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6. 고부가 상품 개발

계란은 완전식품으로서, 난황 및 난백속에는 식품은 물론, 화장품의 원료 및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매우 고부가가치 높은 제품생산이 가능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계란 생산의 활성화 및 계란 가공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양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계**